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

— 피해상황에 공감, 조정합의로 결론나

한 방송사는 친모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의 모습을 게재했다. 해당 사건의 친모는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좋아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살해했는데, 그 딸이 남동생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아빠에게 알린 후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었다.

방송사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가정의 딸과 관련한 보도내용에서 여자아이의 모습을 스케치 화면으로 삽입하였는데, 바로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파트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건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상단에 위치하여, 그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신청인의 초상이 나온 부분이 캡처된 이미지가 뉴스와 함께 검색되는 것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방송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2곳을 상대로 로도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심리가 개최되었다.

미성년자인 신청인을 대리해 조정심리에 참석한 신청인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뜰이나 살해당한 피해자가 구급요원에 의해 이송되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불안감을 느낀 신청인이 이후 신청인의 옷차림과 가방을 눈여겨 본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네가 그 사건의 누나냐’ 또는 ‘너희 집에서 살인사건이 난 것이냐’는 오해를 사게 되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신청인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사과와 손해배상, 그리고 신청인의 이미지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조정심리에서 유난히 자주 들게 된 말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인데...’였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필자도 친자식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1차 울분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귀한 자식을 영동한 살해사건과 연관 짓는 바람에 신청인 가족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2차 공감을 하였다.

한편 언론사 및 포털사에서 나온 대리인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버이의 심정에서 이 사건의 피해 상황에 공감을 표시했다. 중재부에서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당사자간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다.

방송사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손해배상금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초상을 삭제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목록을 전달받아 더 이상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포털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송사로부터 기사공급계약에 따라 단순히 해당 기사가 검색되도록 한 포털사는 향후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제 더 이상 신청인의 이미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보도로 인해 갑작스레 신청인의 가정에 들이닥쳤던 불안감이 잊혀지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너와 나의 입장을 상호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갈등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사건이었다.

